

## 이데올로기의 ‘낯섦’ 드러내기: 형태의(Lettre) 번역의 중한번역 적용을 중심으로\*

강은정(베이징제2외국어대학교)

### 1. 서론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를 지배하는 관념이자 사상적 체계로 번역 과정에서 원전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 옮겨진 이데올로기는 문자의 형태로 남아 재생산되고 재해석된다. 그러므로 번역이라는 것은 지배 권력의 시스템 안에서 생산된 ST 문화권의 이데올로기를 또 다른 지배 권력이 작동하는 TT 문화권으로 옮겨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번역으로 ST의 이데올로기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충돌 속에서 변질의 과정을 거치며 배척되고 삭제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변질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단연 힘의 논리이다. 지배 문화의 영향하에 힘의 논리는 끊임없이 변용되고 재정립되는 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는 고정적이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이면서도 편향적인 가치이자 신념으로 번역의 방식이나 전략에도 그대로

\* 본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변질과 조정을 논하면서, 자국화의 논리에 따라 ST의 이질성을 배제하고 삭제한 경우에는 ‘변질’, ST의 이질성을 TT에서도 충실하게 재현한 경우는 ‘조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질성의 배제로 인해 동질화를 초래한 경우는 ST의 성질과 특성 자체가 변화되어 ‘질’이 변화했고, ST의 이질성을 수용하고 낯섦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부분적인 ‘조정’을 가한 경우에는 ST의 특징이 TT에서도 충실하게 재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영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번역은 문화적 변용과 권력의 재정립을 반복하며 다시쓰기가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앙드레 르페브르(Andre Lefevre)의 ‘굴절’<sup>1)</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원전 텍스트의 이질성을 외면한 채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번역 행위는 TT문화권의 언어적·문화적 체계모니의 우월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윤성우와 이향, 2007, p. 72) 이 과정에서 ST문화권의 이데올로기는 ST의 특성과 타자성이 제거된 채 변질되며, 죽어있는 문자로 남게 된다. 이에 프랑스의 번역학자인 베르만(Berman, 1985/2011)은 형태의(Lettre) 번역을 전제로 ST의 생명력과 타자성을 되살리고 낯성을 드러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자국화의 동질화에 저항하기 위한 문자 지역의 한 방법으로 내용이나 단어에 대한 충실성이 아닌 문자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로 하며, 원저자의 용어들과 어법(외피), 의미(몸), 맵시·덕목·에너지·활력(혼) 등 원전 텍스트의 살아 있는 문자를 TT에서도 살아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전략이다(김선영, 2014, pp. 46-47).

물론 자국화가 번역의 체계모니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전략을 구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살아 있는 문자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는 자국의 언어와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가차 없이 변형되고 제거되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은 근대 이후 각각 자본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며 수많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마찰을 빚어왔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변질이 무비판적으로 허용될 때 번역가가 형태의 번역에 기반해 낯성을 들여오기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없이 변질되고 제거된 이데올로기들이 ST 문화권의 요소로 덧입혀져 왜곡되어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형태의 번역에 기반하여 ‘낯성’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구현해 낼 것인지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해야 한다. 이는 낯성과의

1) 르페브르는 TT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로 인해 문화적 변용(굴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번역을 ST의 언어와 문화가 그대로 반사·반영되는 작업이 아니라 굴절의 작업을 거쳐 재조점되는 문화적 변용의 결과로 본 것인데 후원, 이데올로기, 시학, 자연언어, 담화세계 등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굴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지영과 孟阳, 2022, p. 168-169).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번역가가 투명한 번역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배 문화의 권력에 동화되지 않고,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ST의 이데올로기를 살아 있는 문자로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낮춤을 밝히고 드러냄으로써 번역 행위는 무의식적에서 의식적으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폐쇄적에서 개방적으로 전의되며 원문의 이데올로기는 살아 있는 문자로 재생산된다. 독자 또한 해석의 주체로서 이질성을 수용하며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원전 텍스트의 의미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소 어색하고 난해할지라도 이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노출하여 독자를 판단과 해석의 주체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베르만은 낮설지만 기괴해서는 안 된다고 맹목적인 이국화와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살아 있는 문자의 번역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체계로 보고, 형태(Lettre) 번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이데올로기의 중한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 서적인 『정치논리-당대중국사회주의정치학(政治逻辑-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과 그 한국어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을 분석했다. 『政治逻辑-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에서는 관련 주제를 14개의 정치적 명제로 나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정치 제도,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 이데올로기 번역의 실질적인 사례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중국 푸단대학교의 교수인 류젠쥘(刘建军), 천저우왕(陈周旺), 왕스카이(汪仕凯)가 집필을 맡았으며 2022년 상하이 인민출판사(上海人民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1』,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2』는 ST의 한역본으로 구성철, 김미래, 강애리가 번역을 맡았으며 2024년 2월 한국 신지니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 분석을 통한 형태의 번역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자국화와 이데올로기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번역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낯섦과 이국성을 드러낼 것을 강조한 이래(최지영과 高云, 2021, p. 204)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는 번역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분석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여기에서 자국화는 자국의 문화와 사회, 규범, 언어를 기반으로 모방과 각색, 표절 및 변형을 가하여 타국의 낯설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지워내는 작업으로 자민족 중심주의 번역이라고도 불린다. 소통을 이유로 번역에 가해지는 정당화와 통속화 작업은 원전의 의미를 포착해 ST를 변질하고 박제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타문화의 고유한 요소들은 자국의 가치로 환원되어 희생되고 병합된다.

베르만(1985/2011)에 따르면 자민족 중심주의 번역을 전제로 번역의 목적을 소통과 의미의 포착에 둔다면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에 희생되며, 언어·문화적 차이는 제거된다. 먼저, 자국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목적지향주의이다. 소통을 이유로 의미를 문자로부터 분리하면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은폐되고 배제된다. 이는 마치 중국의 전통 명절인 ‘춘절(春节)’을 ‘설날’로 번역하여 문화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의미는 살리되 문자와 문화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정복주의이다. 자문화와 조우한 원전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자문화가 타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의식하에 자국의 문화와 가치, 언어 규범 등에 의해 정복되고 사라진다. 설령 이국의 요소들을 수용할지라도 이들은 자국의 요소들에 의해 동화되고 순화되어 자국의 문화와 가치로 각인되기도 한다. 셋째, 혼합주의이다. 자국화의 본질은 ‘자국의 것과 다름없는’ 또는 ‘타자의 흔적이 사라진 자국스러운’ 번역 텍스트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원전은 모사와 각색, 패러디와 표절 등 철저한 하이퍼텍스트적 번역<sup>2)</sup>을 통해 혼합적인 텍스트를 양산한다.

자민족중심주의번역과 하이퍼텍스트적인 번역에 관한 베르만의 사유를

2) 하이퍼텍스트적 번역이란 모방, 각색, 변형 등을 통해 자유로운 글쓰기가 이루어진 번역을 뜻한다.

살펴보면 베르만 역시 자국화에 의한 문화 동화 작업을 경계했음이 분명하다. 베르만도 베누티와 마찬가지로 원전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동질화를 경계하고, 번역의 지향점이 낮춤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적지향주의, 정복주의, 혼합주의를 동반한 자국화가 낮춤의 진입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베르만(1985/2011, p. 24)은 번역을 일종의 성찰이자 체험으로 규정하고, 번역학을 번역에 대한 사유로 보았다. 즉, 번역을 자문화가 타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살적(Corps)'이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본 것인데, 원전을 대면하는 성찰과 체험의 과정에서 원전과 도착어 문화권은 두 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첫째는 원천어의 맥락으로부터 뿌리가 뽑히는 시련이며, 둘째는 타문화의 낮춤과 조우하며 겪게 되는 시련이다(이미경, 2009, p. 93). 이러한 시련을 통해 번역가는 타자와 자아의 차이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표출하고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자국화를 지향점으로 삼게 될 경우, 이러한 차이와 이질성이 압축되고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번역이 응당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 성찰의 의미는 퇴색되고 왜곡된다. 더 큰 문제는 시련과 고통을 상실한 번역은 번역과 번역가의 흔적을 지워냄으로써 번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데 도착언어에 맞게 순화된 번역은 스스로 잊혀야 하며, 원전의 낮춤과 생경함은 지워지거나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베르만, 1985/2011, p. 47). 그러므로 자국화를 주된 번역 전략으로 삼을 경우, 번역을 한다면서 되레 번역과 번역가를 은폐하는 본질의 상실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1) 번역과 번역가의 존재가 지워진 번역을 과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번역은 반드시 본질의 상실을 동반해야 하는지 3) 자국화는 번역가와 번역의 흔적을 지우면서까지 무엇을 지우고 변형시키고자 하는지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국화는 원전의 변형과 손실을 넘어서 번역의 윤리적·담론적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수려하고 유창한 번역을 이유로 자국화가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sup>3)</sup>에서 진정한 번역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국화가

3) 본 논문은 형태의 번역을 통해 낮춤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우고 제거하려고 했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국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찾아내야 동질화를 방지하고 낯설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ST의 이데올로기를 자국화가 가해지는 명확한 지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ST에서는 사상, 정당, 인물, 세계관 등 통해 타자의 이데올로기가 전면에서 드러난다. 베르만(1985/2011, p. 31)의 사유에 근거해 번역을 ‘문자로서의 텍스트 번역’으로 본다면 이 글에서 ST의 이데올로기를 자국화가 가해지는 지점으로 파악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단어 대 단어 번역이 아닌 의식, 관습, 이미지 등을 망라한 살아있는 문자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된다. 압둘라(Abdulla)는 이데올로기를 자신과 타자 그리고 기본적인 세계의 구성에 관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안이나 주장에 관한 언급이라고 정의하며(Abdulla, 1999, 도희진, 2008에서 인용됨) 번역가가 저자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경우 저자의 전략과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Abdulla, 1999, 도희진, 2008에서 인용됨). 전략으로서의 이국화를 주장했던 베누티 역시 번역에는 번역가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으며 소수화 번역과 혼질적 담화를 통해 주류 언어와 문화적 규범, 가치 체계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문화적 변용에 대해 언급했던 르페브르 역시 이데올로기를 인간의 행동을 정리하고 유도하는 형식과 관습, 믿음이 엮여져 있는 뼈대라고 정의했다(Jameson, 1974, Munday, 2001/2023에서 인용됨).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번역 주체와 행위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이자 정신적 신념의 틀로서 살아 있는 문자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둘째, 분석의 층위를 단어(mot)나 형태(forme)를 넘어 텍스트로 확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단어에 밀착된 의식이나 관념이 아닌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적·관념적 체계이자 하나의 세계이다. 특히 자문화와 타문화의 충돌을 유발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중국어 번역에서 지

---

는 번역이란 행위가 갖는 의미 전달의 기능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보다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자국화를 경계하는 것으로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ST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TT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낯설음과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배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핵심 지점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중국의 원전 텍스트와 한국어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질적인 정치적 요소들이 번역가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바라보는 것은 이데올로기 중한번역 연구의 방향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리고 이는 낮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베르만의 번역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2 베르만의 형태의(Lettre) 번역

번역을 자국화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작업<sup>4)</sup>으로 본다면 번역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원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며, 메시지의 전달이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의미의 포착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물론 의미의 포착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의 포착을 번역의 일차적인 과정으로 삼다 보면 결국에는 번역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메시지를 텍스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번역가가 번역해야 할 것은 문자(Lettre)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이지 단어(mot)나 형태(forme), 혹은 일차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sup>5)</sup>. 메시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원전은 축소화되고 통속화되며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작품성과 전문성이 소실된 반쪽짜리 번역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번역해야 하는가? 베르만의 번역의 본질적인 요소로 '문자(Lettre)'를 언급하며 이질성을 드러낸 문자적(형태의) 번역이야말로 충실성을 구현하고 번역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곧 직역주의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부분 학

4)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작업'은 소통을 이유로 의미의 포착에 집착해 모방과 각색, 삭제, 단순화, 변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번역을 의미한다. 베르만(1985/2011, p. 100)은 의미의 포착에 중점을 둘 경우, 색채, 힘, 이미지 등을 망라한 문자 번역에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여기에서 '단어'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의미하며, '형태'는 단어나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법적 요소나 구성을 뜻한다. 그리고 일차원적인 메시지는 문자에서 '의미'만 살린 것을 의미한다. 베르만(1985/2011, p. 101)은 TT에서 단어나 형태, 의미를 넘어서 형태, 의미, 힘, 메시지, 아름다움 등을 망라한 문자, 그리고 텍스트의 세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들이 문자를 단어의 동의어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베르만은 샤를 폰텐의 서문을 인용하여 문자 번역은 축자역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직역주의와 분명히 선을 긋는다. 다음은 샤를 폰텐이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묘약』 제1권에 쓴 서문이다.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최대한 원저자의 용어들과 어법들을 전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외피(robbe)라 부른다.

두 번째로, 의미 전체를 온전하게 전달해야 한다(왜냐하면 단어들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져서 의미를 방치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몸(corps)이라 부른다.

셋째, 자신이 번역하고자 하는 저자의 자연스러운 맵시, 덕목, 에너지, 부드러움, 우아함, 존엄성, 힘, 활력 등을 최대한 순수하게 전달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글의 혼(魂, âme)이라 부른다(베르만, 1985/2011, p. 112).

이에 근거하면 베르만의 형태의 번역은 일차적인 직역을 넘어서, 외피-몸-혼 하나로 연결된 복합적이면서도 신체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용어와 어법, 의미, 에너지, 우아함, 힘, 활력 등을 망라한 하나의 세계를 구현하는 고차원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일대일 대응에 얽매인 직역이나 의미만 살린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통해 원전을 축소화한 자국화 작업은 베르만의 지향점과 대치되는 죽어있는 번역이 된다. 자국화는 읽기 좋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의 풍부함과 다채로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아함과 에너지, 색채, 운율, 리듬 등을 포기한 번역으로 문자 번역은 자국화의 논리적 모순점과 딜레마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번역가의 지향점을 외피-몸-혼에 비유해 정의한 것은 베르만의 형태의 번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베르만에게 있어 번역은 신체성을 동반한 행위로서 살아 있는 실재를 드러내는 ‘살적(Corps)’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번역가는 외피-몸-혼을 거치는 직접적인 경험과 성찰을 통해 타자와 대면하며, 타자의 살아 있는 ‘문자성’을 받아들임으로써(p. 113) 타자와

이상적인 관계를 맺는다. 베르만에 따르면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낮선 것을 낯선 것 자체로 열어내는 작업이다(p. 109). 이를 통해 번역은 지엽적인 세계가 아닌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의 세계를 구현하며, 타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수용자는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여(p. 109) 타자와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존한다는 것이다. 원전 텍스트의 살아 있는 문자는 대립과 저항이 아닌 TT문화와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자국 문화를 살찌우고 풍요롭게 한다. 맹목적인 자국화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타국의 이질성을 자국적인 요소로 치환하여 수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타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자국의 문화로 손본 TT를 전달함으로써 독자를 배반하게 되는 셈이다(p. 113). 하지만 형태의 번역은 어떠한가? 형태의 번역은 문자를 '살아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자국의 문을 개방하여 맞아들인 낯선 타자들은 TT문화권에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형태로 살아 숨 쉬게 되며, 타자와 자아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

물론 형태의 번역이 실질적인 번역 전략이자 분석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낮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가 필요하며 형태의 번역의 양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낮춤의 전달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기괴한 번역을 지양했던 베르만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적인 이론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형태의 번역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 정치 서적의 한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타국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배치하여 낮춤을 드러낸 양상들을 분석하고 형태의 번역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즉, 문자 번역을 적용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1) 초점의 구체화 2)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 3) 강도 높이기 4) 긍정적 명시화 등 4가지 유형<sup>6)</sup>으로 범주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6) 송은지(2019)는 인지번역학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변화와 조정을 논했는데, 관련 사례들을 1) 초점의 변환 2) 범주의 전환 3) 관점의 전환 등으로 유형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문화적 충돌을 겪었고, 이러한 문화적 충돌과 대립을 거쳐 중국의 문화는 한국의 대중들에게 점차 수용되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중국 문화에 대한 한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리는 많이 좁혀진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국의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맹목적으로 자국화하여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빚어내기보다는 낯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국화와 이국화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형태의 번역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 분석

‘살아있는 문자’는 단순히 단어나 형태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작품 속에 살아 숨 쉬는 문자 그 자체로서 용어와 어법은 물론 텍스트의 의미와 에너지, 우아함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이는 텍스트의 골격이자 정신 및 영혼으로 문자가 지닌 의도와 본질을 TT에서도 살아 있는 문자로 복원하여 낯섬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낯선 이데올로기의 전달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지향점이자 구심점이며, 형태의 번역은 이러한 낯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1) 초점의 구체화 2)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 3) 강도 높이기 4) 긍정적 명시화 등을 통해 원전의 의도와 본질을 살아 있는 문자의 형태로 구현된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 3.1 초점의 구체화

번역의 초점은 번역의 핵심이자 주요 과제이다. 번역 텍스트에서 이러한 초점은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지니며, 번역가는 초점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와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드러낸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초점을 구체화하여 특정 인물을 부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화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문자 번역을 적용한 양상들을 1) 초점의 구체화 2)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 3) 강도 높이기로 정리하였으며, '명시화'를 추가하여 총 4가지로 유형화했다.

(1)

ST: 毛泽东在实现两个大目标方面作出了卓越贡献。首先, 他将马克思主义的理论与实践应用于中国的实际情况。尽管缺少产业工人的基础, 但是却面对上亿农业劳工, 其中大部分生活在赤贫状况下, 他便到这些农民中去寻找他的革命力量。……1926年, 中国内地的农民开始起来反抗地主, 但是毛泽东的许多合作伙伴轻视他们的努力。毛泽东(∅)决定亲自去那些地方看看到底在发生什么事情。所以, 中国革命在历史上通常被认为是伟大的农民革命, 甚至被称作农民革命的典型。(19)

TT: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했다. 먼저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을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응용해냈다. 당시 중국에 산업 노동자라는 기반은 결여되어 있었지만, 마오쩌둥은 대부분이 극빈에 시달리고 있는 수억 명에 달하는 농업 노동자의 존재에 착안해 농민에게서 혁명의 역량을 찾으려 했다. 1926년, 중국 내지의 농민들은 마침내 지주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동지들은 이러한 농민들의 노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마오쩌둥만이 직접 농민들의 봉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가서 사건의 경과를 살펴며 농민의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중국혁명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농민혁명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농민혁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63)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자 중국 근현대사에서 입지적인 인물로 원전 텍스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그려진다. 먼저, TT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단순히 ‘毛泽东(마오쩌둥)’의 뒤에 보조사인 ‘은’을 추가했을 뿐이지만 후에는 ST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만’을 추가하여 마오쩌둥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하고 농민의 봉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毛泽东的许多合作伙伴(중국 내지의 동지들)’과 대비시킨다. 과거 미·소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역량은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저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인명은 TT문화권에서 등가어를 찾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소로 그 자체로 이질성을 띤다. 번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심점으로 초점을 구체화하여 의미(뛰어난 지도자), 이미지와 특징(통찰력, 추진력, 위대함), 관계(마오쩌둥↔마오쩌둥의 동지들) 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 인물을 TT에서 가시화하고 살아 있는 문자를

구현하고 있다.

### 3.2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

『政治逻辑·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는 사회주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과 정치 체제를 소개한 책으로 ST에는 사상, 정당, 인물, 목표, 세계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표 1  
ST에 드러난 핵심 이데올로기

사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현대 사회주의 정치학
정당(체제)	공산당(공산당 지도체제)
인물	마르크스(Marx), 시진핑(习近平), 마오쩌둥(毛泽东)
목표	민족단결, 국가통일, 샤오강사회, 중국노선, 공동부유
세계관	인류운명공동체

ST에서도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는 은폐되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는데 번역가 또한 사회주의를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보고 TT에서 이데올로기를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데올로기는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거나 부정적인 속성을 중화시킨 반면, 서구의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요소들을 보다 긍정적인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서술어와 부사, 형용사 등과 결합하여 상황성<sup>7)</sup>과 시대성을 구현해냄으로써 생산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중한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7) 상황성은 시대 혹은 문화적 분위기와 관련된 정보 또는 상황 맥락으로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는 텍스트가 성립되는 기준의 하나로 ‘상황성’을 제시했다(장혜, 2023, p. 2)

(2)

ST: 马克思主义不仅为中国革命提供了强大的思想武器, 更为重要的是, 它与中国传统知识相结合, 改造了中国传统的政治知识体系, 孕育出了开放性、革命性、能动性、新证性的政治知识系统。马克思主义与中国传统知识的结合, 应该被视为近代以来政治知识革命的代表性事件。对此, 我们应该明白如下三个问题。(9-10)

TT: 마르크스주의는 중국혁명에 강력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전통 지식과 결합해 기존의 정치지식체계를 개방성, 혁명성, 능동성, 논증성을 두루 갖춘 정치 지식체계로 탈바꿈시켰다.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전통지식의 결합은 근대 이후 정치지식혁명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

(3)

ST: 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超越了西方政治学极端主义的排他性特征, 将自身放在中国这块古老的土地上, 在继承中国传统政治学理想传统的基础上, 吐故纳新, 绽放出崭新的理想之花(∅)。(8)

TT: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은 서구 주류 정치학이 지닌 극단주의적 배타성을 초월해 스스로를 중국이라는 유서 깊은 공간에서 놓아두고 중국 전통 정치학의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 참신한 이상을 꽃피우는 데 주력한다. (43)

먼저, 예(2)를 살펴보면 ‘孕育出(배태하다)’는 ‘탈바꿈시키다’로 전환된다. 그 결과 개방성, 혁명성, 능동성, 논증성을 두루 갖춘 중국의 정치지식체계와 마르크스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한층 더 부각된다. 한국어에서 ‘배태하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발생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내포하다’를 강조하지만 ‘탈바꿈하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때 사용한다.

다음으로 예(3)에서는 ‘낡고 오래되다(古老)’가 ‘유서 깊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본문에는 없는 ‘주력하다’가 추가되며 타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정치지식체계,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을 이데올로기의 구심점으로 하여 그 색채(정통성, 개방성, 혁신성, 혁명성)를 드러냄으로써 타자의 이국성을 전면에 드러낸다.

## (4)

ST: 尽管中国传统政治学的知识要素在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体系中已经退居次要位置, 但它铸就的精神、品格与追求却被完整地保留和延续下来, 塑造了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的特色。(6)

TT: 비록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 체계에서 중국 전통 정치학의 지식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부차적이라 하더라도(Ø) 중국 전통 정치학이 주조한 정치의 의의와 특성, 지향은 고스란히 유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현대 사회주의 정치학의 특색을 더 해주었다. (41)

반면 사례 (4)처럼 번역가의 판단하에 부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退居(밀려나다)’를 삭제하여 중국 전통 정치학의 피동성을 약화한 경우도 있다. 문자를 번역한다는 것은 대응되는 어휘로 객관적인 글자를 치환하는 작업이 아니다. 본문에서 주어로 쓰인 중국전통정치학의 지식요소(中國傳統政治學的知識要素)는 ‘退居(밀려나다)’라는 서술어를 동반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저자의 의도와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한다.

## (5)

ST: 当代西方政治学就是在这样一条轨道上(Ø)丧失了其存在的价值, 因为社会科学的研究方法绝不是彰显研究技巧的职业化生存道路, 更不是宣扬知识霸权的傲慢行为, 而是接近真理、颂扬人类和社会关怀的积极行动。从这个角度来说, 西方社会科学尤其是美国社会科学所推崇的“变量语言”(variable language)乃是对完整的社会事实与文明世界的肢解与阉割。近代以来, 尤其是行为主义盛行以来的西方政治学之所以影响全球, 一个极为重要的原因就是借助科学语言完成了对宗教语言的扬弃。第二次世界大战以后, 美国政治学之所以影响巨大, 就在于它借助极端科学化、极端数字化、极端技术化的语言完成了对欧洲规范性政治知识的超越, 从而拥有了貌似中立性的“知识霸权”。可以说, 美国构建政治知识的科学化努力是当今世界最为彻底的, 它一方面导致了美国政治知识体系包含著根深蒂固的“科学的傲慢”, 另一方面也使美国政治知识体系显示出令人震惊的浅薄与短见。(8)

TT: 현재 서구 주류 정치학은 이러한 실천적 성격에서 이탈한 탓으로 그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단순히 연구기술을 내세우는 비즈니스적 생존전략이나 지식 패권을 과시하는 갑질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탐색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특히 미국 사회과학이 떠받드는 '양화된 언어'는 완전한 사회적 사실과 문명세계를 **되레** 해체하고 말살하고 있다. 근대 이후, 특히 행동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서구 주류 정치학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서구 주류 정치학이 과학적 언어를 통해 기존의 종교적 언어를 종결시켰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치학이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 정치학이) 과도히 수치화·공학화된 언어로 유럽의 규범적 정치지식을 압도함으로써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지식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지식의 철저한 과학화 작업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일천하고 근시안적인 특징을 부각시켰다. (44-45)

한편 서구권의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한층 더 부각되며,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과 서구권 이데올로기의 대조는 TT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논리적 체계이다. 예(5)를 살펴보면 첫 문장에 '이탈하다'를 추가하고,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나 까닭을 말할 때 쓰이는 '탓'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乃是(곧~이다)'은 '되레'로 대체되며 미국 사회과학이 떠받드는 '양화된 언어'의 부정적인 측면이 한층 더 강조된다. 이러한 대비는 서구의 '철저한 과학화 작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절정에 이르는데 번역가는 '震惊(몹시 놀라다)'을 '경악하다'로 번역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살아 있는 문자로 구현해내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저자와 원전 텍스트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도와 관점을 내재한 사상적 체계로서 상대적이면서도 편향적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번역은 글자의 형태로 인쇄된, 완벽하게 객관화된 문자가 아닌 저자의 의도를 내포한 '문자'를 번역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번역가는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에 얽매이는 대신, 문자의 의미와 논리 체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이는 의미에 충실하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의 번역을 적극 실현한 것으로 낮춤을 수용하고 연대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3 강도 높이기

베르만(1985/2011, p. 136)은 프리드리히 뢰들린(Friedrich Hölderlin)의 번역 사례를 소개하며 문자지향적 번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래 강도 높이는 ST의 특정한 면을 드러내기 위해 베스너(Beissner)가 사용한 용어이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면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마르크스주의,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는 원전의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강도 높이를 통해 의도가 전면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은 번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어휘를 선택 또는 대체함으로써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도 높이는 문자 자체의 힘과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의도를 부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6)

ST: 马克思主义政治学是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的基石和灵魂。马克思主义政治学是政治学发展史上全新的体系，不同于历史上或与马克思主义经典作家同时代的其他政治学体系，马克思主义政治学是建立在历史唯物主义和辩证唯物主义的基础上的，他从现实社会的生产方式和交换方式出发，科学地揭示了人类社会发展和历史进步的基本规律，分析了社会关系和经济关系对社会政治关系的作用，从而说明了政治现象的本质特征。(2)

TT: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초석이자 핵심이다.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정치학 역사상 가장 참신한 체계로, 과거와 동시대의 여타 정치학 체계와 대별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사회의 생산방식과 교환방식에서 출발해 과학적으로 인류사회의 발전과 역사적 진보의 규칙을 제시하고, 사회관계와 경제관계가 사회정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정치현상의 본질적 특징에 관해 설명하였다.(33)

#### (7)

ST: 十八届中央政治局委员同中外记者见面时，习近平强调要“坚定不移走共同富裕道路”。这是习近平代表新一届领导集体作出的庄严承诺。

(20)

TT: “흔들리지 않고 공동부유 노선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 지도체제가 천명한 엄중한 약속이었다. (66)

먼저, 예(6)과 (7)은 정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부각한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全新’은 ‘완전히 새로운’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TT에서는 ‘가장 참신한’으로 전환되어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는 첫 문장인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을 부각시키는 ‘马克思主义政治学是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的基石和灵魂(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이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초석이자 핵심이다)’과 연결되어 마르크스 정치학과 중국 공산당 정치 체제의 권위와 위상을 드러낸다. ‘作出(하다)’은 ‘정부 또는 권위 있는 기관이 진리나 사실, 입장 등을 밝히다’를 의미하는 ‘천명한’으로 정도가 강화되어 목적이 ‘엄중한 약속(庄严承诺)’과 결합하며,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의 권위를 드러낸다.

(8)

ST: 所以, 我们说马克思主义中国化是一个宏大的历史命题, 更是改天换地的历史事件。因为马克思主义不仅改变了中国的意识形态也改变了中国的政治知识构造, 更(∅)改变了中国政治知识的表达方式。(9)

TT: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명제인 동시에 경천동지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물론 그 정치지식구조와 표현법까지 송두리째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46)

다음으로 예(8)을 살펴보면 ‘改变(바꾸다)’이 세 번 반복되며, ST에서 병렬로 배치되었던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지식구조 및 표현법’은 TT에서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물론 그 정치지식구조와 표현법까지’로 구조가 전환된다. 원문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우나 ‘更(보다)’을 ‘까지’로 전환하고, 원전 텍스트에는 없는 ‘송두리째’를 추가하여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TT에서는 부분적인 조정과 첨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혁신성과 사회주의 노선을 견고 있는 중국 국민들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가 중대한 역사적 명제이자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다)와 연결되며, 텍스트의 전체적인 힘과 색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3.4 긍정적 명시화

학문적 인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전문적이고 복잡한 ‘논리 체계’로 재인식하는 것으로(이정찬, 2013, p. 104) 논리 체계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법칙이자 원리이다. ST의 논리 체계는 명시화 작업을 거쳐 TT로 재구성되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접속사를 추가하여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데올로기를 가시화하였다<sup>8)</sup>. 예(9)를 보면 원문에는 없는 ‘반면’을 추가하여 타국과 중국의 정당 체계를 대조하고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역량과 중국식 현대화 정치 발전 노선의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 (9)

ST: 也就是说, 很多国家的政党已经退化为赢得选举的政治机器和单一面目的执政动物。领导的蜕化和弱化直接导致了国家丧失了发展的目标与方向。(Ø)中国独具特色的领导体系与执政体系的合一与统一, 既保证了中国社会主义事业的方向, 又开创出了一条富有中国特色的政治发展道路。(22)

TT: 즉,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정당**은 선거 공학에 매몰된 정치 기계 또는 집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논박이 동물로 전락했다. 리더십의 변질과 약화는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케 하였다. **반면 중국은 통합·통일된 지도체계와 정치운영 체계를**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사업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중국적 특색이 다분한 정치 발전노선을 개척할 수 있었다. (69)

이렇듯 긍정적 명시화를 통해 가시화된 이데올로기는 텍스트 차원에서

8) 물론 이는 명시적으로 접속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접속사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므로 번역가가 앞뒤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추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접속사를 통해 TT에서 서구와 중국 정당 체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명시화’의 사례로 유형화해 분석했다.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도 및 관련 정보들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TT 문화권에 ST 문화권의 이데올로기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는 베르만이 말한 ‘타자와의 관계를 텍스트 차원에서 열어가는 것’(김선영, 2014, p. 27)으로서 번역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4. 결론

번역가는 끊임없이 무엇을 번역해야 하고,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번역이란 타문화의 언어와 문화로 점철된 원전 텍스트를 번역 텍스트로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전 텍스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으며, TT 문화권에도 사회문화적 관습, 종교, 학문, 예술 등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번역이라는 것은 ST에 내재된 이질적인 요소들이 TT 문화권의 자국적인 요소들과 만나 상생과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자아와 타자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베르만의 형태의 번역은 타자의 낯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주하는 것으로서 ST와 TT문화권의 요소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질적인 타국의 요소들은 형태의 번역을 통해 TT 문화권의 언어·문화적 요소들을 매개로 하여 살아 있는 문자로 재현된다. 이는 가독성을 위해 낮춤을 희생시킨 자국화 작업도 아닌, 이국의 것을 위해 자국의 것을 희생시킨 의미 없는 번역도 아닌 자국의 것이 타국의 이질성을 받아들이며 발전을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작업이다. 즉, TT문화권이 ST문화권의 낮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조우함으로써 모국어의 가능성을 개방하고 ST 문화권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생과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번역은 독자에게 ‘낮설게’ 다가가는 이국화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번역가는 이국화 전략을 통해 번역가를 TT 텍스트에서 가시화함으로써 번역이라는 본질적인 행위나 전문에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역본에서

도 번역가는 자국화의 논리에 동화되어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초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ST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이를 부각하여 낯섬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1) 초점의 구체화 2)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의 활용 3) 강도 높이기 4) 긍정적 명시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국화의 동질화에 저항하며 ST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원전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구현해낸 형태의 번역은 번역가와 수용자의 측면에서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번역가의 측면에서 보면 번역가는 형태의 번역을 통해 TT에 가시화되며, 번역 행위의 주체적인 행위자로 번역 전략을 설계하고 주도한다. 또한, 수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독자는 더이상 변질된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가 아니라 타문화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수용의 주체로서 상정된다. 그러므로 형태의 번역은 저자, 번역가, 그리고 독자 등 번역의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번역에 개입시켜 이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회복하며, 번역을 주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생과 공존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번역 윤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물론 형태의 번역을 모든 절대적인 번역 전략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낯섬의 전달을 전제로 하는 번역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제적 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매체 번역은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의 포착은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의미 포착에 실패한다면 번역의 완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때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자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번역가가 무엇을 번역해야 하고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으로 비판적인 번역과 수용의 길을 마련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구성철, 김미래, 강애리. (2024).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1. 산지니.  
刘建军, 陈周旺, 汪仕凯. (2024). 政治逻辑-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 上海, 人民出版社.

### <2차 자료>

- 김선영. (2014). 일방적 문화편향성을 넘어 상생의 미학으로 — 베누티와 베르만의 이국화 번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4, 25-55.  
도희진. (2008). 중한 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9(3), 27-45.  
송은지. (2019). 번역과 이데올로기 연구의 인지번역학적 접근. 통역과 번역, 21(3), 75-100.  
윤성우, 이향. (2007). 베르만(Berman) vs 뎀(Pym): 번역윤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한국프랑스학논집, 41, 67-87.  
이미경. (2009).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0(2), 83-104.  
이정찬. (2013). 글쓰기 교육을 위한 과학 텍스트 분석 연구,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7(2), 97-127.  
장혜. (2023). 장아이링(张爱玲) 작품의 번역본 ‘텍스트성’ 파괴 양상 연구: 베르만의 번역분석론과의 방법론적 접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최지영, 高云. (2021). 베누티의 ‘이국화(foreignization)’의 중한번역 적용을 위한 소고(小考): ‘소수 문학’의 ‘낯섦’ 드러내기. 비교문화연구, 63, 201-233.  
최지영, 孟阳. (2022). 청소년 문학의 ‘굴절(refraction)’ 연구: 번역규범과의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6, 163-199.  
Berman, J. (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윤성우, 이향, 공역). 철학과 현실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남원준, 이형진, 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 Making the 'foreignness' of ideology felt: The application of 'lettre translation' to Chinese-Korean translation

Eun-jeong Kang (lovedi103@naver.com)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Abstract

Ideology serves as a conceptual and philosophical framework that shapes sociocultural norms and values. In translation, the ideology embedded in the source text (ST) may change as it interacts with the target culture. Antoine Berman argues that a foreignizing strategy for maintaining *lettres* should be adopted to preserve the vitality and foreign identity of the ST. Translating *lettres* involves pursuing a form of literalism aimed at resisting the homogenizing tendencies of domestication, ensuring that the source language remains alive in the target text. This approach can serve as a key mechanism for actively engaging with and embracing foreignness. The present study closely examines the Korean translation of 政治逻辑—当代中国社会主义政治学 (The Logic of Chinese Modernization), viewing ideology as a cri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atterns of "living" *lettres*. The findings reveal the degree to which *lettres* in the ST are preserved in the Korean translation. By embracing the foreignness inherent in the ST, "lettre translation" allows the ST ideology to be fully realized, offering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ethical dimensions of translation.

**Keywords:** Berman; ideology; foreignization; lettre translation; foreignness  
키워드: 베르만, 이데올로기, 이국화, 형태의 번역, 낯섦

강은정

베이징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외국인 교수

lovedi103@naver.com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